

# 『調信夢』의 小說化 問題

—「잃어버린 사람들」·「꿈」을 중심으로—

李 龍 男\*

## I. 緒 言

說話文學이 小說文學과 긴밀한 聯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說話의 小說化 過程과 그 說話를 素材로 한 小說의 分析 研究<sup>1)</sup>는 매우 意義

\* 硕士課程(國文學 專攻)

- 1) 張德順「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대출판부, 1978) p. 45.

우리의 古代小說은 거의가 이 說話에 뿌리를 둘고 창작되었다. 그리고 현대의 작가들도 점차 설화를 소재로 작품화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既存 研究의 例를 上揭書에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I. 文獻說話를 素材로 한 作品

- ① 방기환의 「귀」(문학예술 57.11)와 驚耳說話(遺事卷二 48 景文大王條)
- ② 정한숙의 「禮成江曲」(현대문학 56.9) 供奏說話(高麗史樂志 卷七一)
- ③ 정한숙의 「海娘祠의 경사」(사상계 57.3) 海娘祠傳說
- ④ 황순원의 「차라리 내 목을」(예술원보 11) 天官寺전설(史記列傳 第一 김유신조, 遺事 卷一 太宗春秋公條, 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 佛字條)
- ⑤ 황순원의 「비늘」(현대문학 106) 漢州歌전설(고려사 권71 樂志 삼국속악조)

### II. 烈女說話의 作品化

- ① 박종화의 「아랑의 경조」 都瀾說話(史記 卷48 列傳都瀾條)
- ② 김동리의 「원왕생가」 願往生歌(遺事 卷五 광덕 엄장조)
- ③ 최인훈의 「溫連」 溫連(史記)

### III. 꽃 傳說

- ① 오영수의 「睡蓮」(현대문학 82호)
- ② 오영수의 「실걸이꽃」(현대문학 159호)

### IV. 力士, 새 傳說

- ① 김동리의 「황토기」
- ② 오영수의 「새」

### V. 웃 傳說

- ① 장웅택의 「전설」(현대문학 58.5) 影池傳說
- ② 한문숙의 「돌」(문학예술 55.12) 장자못전설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說話의 文學的 考察은 결국 文學의 源泉, 文學史의 源流를 探究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sup>2)</sup>고 한다면 說話의 構造的 分析은 바로 小說의 構造를 分析하는데 先行되어야 할 課題이며 小說化 過程을 探究하는 作業自體가 文學史와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sup>3)</sup>

說話研究에 있어서 根本的으로 必要한 것은 그 構造의 分析이며, 說話自體의 研究에서 이 分析的 方法이 先行되어야 이것이 장차 小說化過程을 檢討하여 分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口傳說話가 文字로 定着되고 이것이 다시 文學化되는 過程이 結局은 說話文學研究의 대상이 되는 만큼 口傳의 說話와 文字化된 說話의 比較考察이 必要한 基礎 作業이겠으나 本稿에서는 「三國遺事」卷三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sup>4)</sup>에 나타난 文獻說話「調信夢」에 관한 構造分析과 아울러 文學的 價值를 考察할 것이며, 이 說話가 일찌기 春園李光洙의 中篇「꿈」<sup>5)</sup>에서 小說的 變容을 하였음을 익히 아는 사실이겠고, 黃順元의 短篇「잃어버린 사람들」(1955. 11)도 이 說話의 小說化가 아닌가 하여 「꿈」과 「잃어버린 사람들」의 構造 分析을 試圖하여 「調信夢」이 이 두 作品에서 어떻게 受容(變容)되고 있는가를 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三國遺事」야말로 「說話의 寶庫」라고 陳述한 張德順 교수는 그의 著書「韓國說話文學研究」<sup>6)</sup>에서 「三國遺事」의 說話 分類에는 몇 가지의 特殊한 條件이 있어一般的인 方法을 그대로 適用하기 곤란함을 指摘하면서 그 理由로써 첫째, 이 說話들은 과거에 口傳으로 혹은 文獻으로 傳

2) 장계서, p. 46

3) 장덕순 교수의 「韓國文學史」는 이런 관점에서 시도된 著述이다.

4) 이병도 譯註「三國遺事」并原文(廣曹出版社 1973.)을 텍스트로 함.

5)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에 있는 「文章」 1939년 7월 발표작은 별개의 작품이며, 이 작품은 해방후 1947년에 사회의 비난 가운데 思陵에 蟄居하여 「돌베개」를 쓰던 시기의 작품이다.

6) 전계서, pp. 380-381.

해 내려온 것이지만 僧一然이라는 個人的 貌으로 定着된 作品이라는 것 둘째, 作者가 佛教의 信仰에 徹底한 僧侶이기 때문에, 너무 宗教的 인面에 傾倒되었다는 것과 따라서 作家는 宗教的 奇事異跡을 염연한 歷史的 事實로 다루었다는 점 세째, 혹은 흥미있는 民間說話 같은 것도 作家의 趣意에 따라 若干의 修正과 刪減이 作用하여, 本格 說話보다는 派生 說話가 優勢하다는 것 등을 提示하면서 각각의 說話들의 性格을 토대로 하여 分류하는 것이 가장 便宜한 方法이라고 力說하고 있다. 이러한 理論的 根據를 바탕으로 하여 「調信夢」의 研究를 그 說話 自體가 지닌 特殊한 條件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한편 張敍수의 三國遺事 所載 說話 分類表를 參照하면<sup>7)</sup> 1. 神話, 2. 傳說, 3. 民間說話, 4. 佛教緣起說話로 大別하고, 다시 각항을 세분하였는데 여기서 民間說話만을 다시 細分目하여 보이면 1. 交婚·結婚, 2. 懷姪·誕生說話, 3. 忠·孝·烈, 4. 圖讖·占卜·凶兆·豫言, 5. 夢, 6. 英雄, 胎復, 7. 陰助護國, 8. 動物이 登場하는 諸說話 등이다. 위의 5. 項 〈夢〉에 바로 調信之夢을 ‘人生無常’으로 풀이하여 놓았다.

## II. 「調信夢」의 構造와 意味

昔新羅爲京師時。有世達寺<sup>今興教寺也。</sup>之莊舍。在溟州捺李郡。<sup>按地理志。溟州無捺</sup>李郡。唯有捺城郡。本捺生郡。今寧越。又牛首州領縣有捺靈郡。<sup>本捺已</sup>本寺遣僧調信爲知莊。信到郡。今剛州。牛首州今春州。今言捺李郡。未知孰是。本寺遣僧調信爲知莊。信到莊上。悅<sup>□</sup>守金忻公之女。惑之深。屢就洛山大悲前。潛祈得幸。方數年間。其女已有配矣。又往堂前怨大悲之不遂已。哀泣至日暮。情思倦懥。俄成假寐。忽夢金氏娘容豫入門。粲然啓齒而謂曰。兒早識上人於牛面。心乎愛矣。未嘗暫忘。迫於父母之命。強從人矣。今願爲同穴之友。故來爾。信乃顛喜。同歸鄉里。計活四十餘霜。有兒息五。家徒四壁。藜藿不給。遂乃落魄扶搖。糊其口於四方。如是十年。周流草野。懸鶴百結。亦不掩體。遭遇溟州蟹縣嶺。大兒十五歲者忽餽死。痛哭收瘞於道。從率餘四口。到羽曲縣。<sup>今羽縣也</sup>茅於路傍而舍。夫婦老且病。飢不能

7) 전개서, p. 405.

與。十歲女兒巡乞。乃爲里弊所噬。號痛臥於前。父母爲之歎歎。泣下數行。婦乃口  
齒拭涕。倉卒而語曰。予之始遇君也。色美年芳。衣袴稠鮮。一味之甘。得與子分之。  
數尺之煖。得與子共之。出處五十年。情鍾莫逆。恩愛綢繆。可謂厚緣。自比  
年來。衰病歲益深。飢寒日益迫。傍舍壘漿。人不容乞。千門之耻。重似丘山。兒  
寒兒飢。未遑計補。何暇有愛悅夫婦之心哉。紅顏巧笑。草上之露。約束芝蘭。柳  
絮麗風。君有我而爲累。我爲君而足憂。細思昔日之歡。遠爲憂患所階。君乎予乎。  
奚至此極。與其衆鳥之同矮。焉知隻鷺之有鏡。寒弃炎附。情所不堪。然而行止非  
人。離合有數。請從此辭。信聞之大喜。各分二兒將行。女曰。我向桑梓。君其南  
矣。方分手進途而形闊。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鬢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  
已厭勞生。如厭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冰釋。於是慚對聖容。欷歔無已。歸憩  
靈峽所埋兒塚。乃石彌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  
寺。懇修白業。後莫知所終。識曰。讀此傳。掩卷而追繹之。何必信師之夢爲然。  
今皆知其人世之爲樂。欣欣然役役然。特未覺爾。乃作詞誠之曰。快適須臾意已閑。  
暗從愁裏老蒼顏。不須更待黃梁熟。方悟勞生一夢間。治身藏否先誠意。蝶夢蛾眉  
賊夢藏。何以秋來清夜夢。時時合眼到清涼。

이상에서 「調信夢」全文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張德順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친술하고 있다.<sup>8)</sup>

첫째, 調信이 洛山大悲에게 祈求하는 대목은 「金繁新話」中の「萬福寺  
擇蒲記」에 나오는 梁生이 부처님에게 배필을 점지해 달라는 대목과 同  
一한 모티브이다.

둘째, 入夢하는 과정이 南炎浮洲志의 경우나 그뒤의 많은 夢遊錄系의  
작품과 同系이다.

셋째,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場所 人物, 그리고 대화의 삽입, 美  
化된 描寫 등은 완전히 小說的 構成을 갖고 있다.

넷째, 이 작품末尾에 작품의 評과 誠詞가 부연되어 있는데 이러한 作  
者의 노출은 擬人體小說 末尾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中國 古典書의  
체제를 모방한 듯도 하나, 조선의 漢文小說, 說話에도 으례 갖추어져  
있는 形式이다. 뿐만 아니라, 신소설 근대소설에서도 작자의 노출은  
흔히 볼 수 있다.

8) 장덕순, 「한국문학사」(동화문화사, 1977) p. 151.

「調信夢」은 결국 小說이 갖추어야 할 與件을 모두 具備하고 있음을 喝破하였고, 엄밀히 分析해 보면 이 作品엔 그럼에도 不拘하고 說話性이 더 짙다고 하였다. 그것은 口傳하는 傳說이 文字로 定着되었기 때문이고 撰者自身이 作品을 구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宗教的 信仰과 誓世를 目的으로 했기 때문임을 指摘하고 있다.

실제로 이 說話는 小說의 諸要素를 기준하여 검토하여 볼 때 小說로서의 未洽한 점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說話의側面에서 考察키로 하여 우선 論議에 便宜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調信夢」을 段落으로 區分하여 보기로 한다.

- ① 世達寺(興教寺)의 莊舍(莊園)에 知莊(管理人)으로 調信이 온다.
- ② 調信이 太守 金昕公의 딸을 좋아하여 洛山大悲에 得幸을 빈다.
- ③ 金公의 딸이 다른 곳으로 出嫁하다.
- ④ 調信이 大悲 앞에서 그것을 원망하다 잠이 들었다.
- ⑤ 꿈에 金氏娘子가 나타나 사랑을告白하다.
- ⑥ 調信과 金氏娘子가 鄉里에서 四十여년을 살며 子女 다섯을 두다.
- ⑦ 가난하게 살다가 15세된 큰 아이가 굽주려 죽다.
- ⑧ 父母가 年老하여 女兒가 빌어 먹다가 마을 개에게 물리다.
- ⑨ 金氏娘子가 芝蘭約束을 깨고 헤어지길 제의하다.
- ⑩ 調信도 이에 찬성하여 이별하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나다.
- ⑪ 腦髮이 모두 세고 세상에 뜻이 없어 괴로와 하다가 묻은 아이를 파보니 들미록이었다.
- ⑫ 부근 절에 봉안하고 淨土寺를 창건하여 道를 닦다가 죽다.

이 說話의 進行構造를 살펴 보면 ①에서 ④까지 發端, ⑤~⑩까지 經過, ⑪~⑫까지 結末로 볼 수 있는데, 다시 부연하여 말하자면 發端部에서 入夢하여 (④~⑩) 覺夢하는 入夢覺夢이라는 公式的 構成을 지닌 夢遊說話系의 說話임을 알 수 있다.

發端部에서 金氏娘子가 出嫁를 함으로써 이 說話의 갈등(conflict)이 設定되는데 問題는 金氏娘子를 흡모하는 主人公 調信의 身分이 僧侶라는 것이다. 중이기 때문에 사랑해선 안될 사랑을 함으로써 現實的으로 進

行될 수 없는 倫理的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며, 이러한 現實의인 問題를 解決하는 方案으로써 創出된 것이, ‘꿈’이라고 하는 非現實의이며 幻想의in 世界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꿈’ 속에서는 어떠한 事實도, 비록 現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무난히 설명될 수 있으며 作品構造面에서도 오히려 技巧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調信의 소원인 金氏娘子와의 因緣은 꿈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며 이러한 꿈의 導入은 이 說話의 主題性을 더욱 高調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 經過部에 속하는 ⑤에서부터 ⑩까지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行路, (人生行路)에서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은 病, 老, 生, 死의 人生 問題가 합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子女 다섯을 두었다는 점, 큰 아이가 죽고 女兒는 개에게 물렸다는 점, 부모가 병들고 가난했다는 점, 행복한 사십년의 생활도 물거품이 되어 別離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등은 바로 人生의 斷面圖라고 말할 수 있다.

發端部에서 經過部까지 이 說話의 構造에서 接近과 離脫의 構造를 볼 수 있는데 調信과 金氏娘子의 接近과 離脫은 佛教 信仰에 나타나는 生者必滅의 思想이며 會者定離의 構造(혹은 去者必反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結束部는 실제로 이 說話의 宗敎性을 말해 주는 部分으로 僧一然이 文字化할 때 가장 意圖的일 수 있었던 部分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죽은 아들을 매장한 곳에서 돌미륵이 나왔다던가, 돌미륵을 봉안하고 淨土寺를 창건하였다 함은 寺刹緣起說話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 說話を 佛教의in 說話を 斷定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꿈의 세계에서 묻은 아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돌미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꿈을 꿈 아니게 하며 현실을 현실이 아니게 하는 非夢似夢의 幻想을 주는 技法이며 神秘感을 주는 모티브가 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 설화를 다시 삽화군(episode)으로 보면 사랑—寺創建의 두개의 삽화로 볼 수 있으며 捕話 其 1은,

- 入夢—1. 김씨 낭자를 사랑하는 조신  
           └ 2. 행복하게 사는 조신과 낭자  
           —3. 크게 깨닫는 조신.

其 2는,

覺夢—寺院緣起삽화—돌미록을 찾아 절을 세우다.

로 調信의 꿈을 통한 人生無常, 諸行無常, 萬有無常의 構造를 지닌 說話라고 하겠다.

佛教의 根本思想은 諸行無常, 諸法無我一切皆苦, 涅槃寂靜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涅槃寂靜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번뇌하는 無明(無知)과 渴愛에서 생기는 것이니, 바른 수행에 의해서 지혜를 완성하여 진리의 눈을 뜨면, 마침내 갈애와 속박을 끊고 解脫하여 이상적인 경지인 涅槃(Nirvana)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며, 그것은 꿈이요, 헛것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이며, 이슬이요 번개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위나 금전이나 명예나 생명 등에 집착하거나 탐욕하는 것을 버리는 자세가 곧 참된 삶을 얻는 깨달음(覺)이라는 것이다.

‘人生無常’이라는 說話는 文獻이나 口傳을 통하여 여러가지를 대할 수 있으니 南柯一夢이나 邯鄲之夢은 말할 것도 없으며 西洋에서도 Ripvan Winkle이라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調信夢」 說話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全北地方에서 채집<sup>9)</sup>된 民譚 중에 ‘虛妄字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화와 매우 類似함을 볼 수 있다. 여기 간략하게 그 줄거리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어느 곳에 큰애기가 시집을 갔다. 시아버지가 밥상을 갖다줘도 밥을 먹고 나서 “허 그거 허망하다”하고 말끝마다 虛妄字를 넣어 허망하다 하였다.

9) 최내옥, 「全北民譚」(형설출판사 1979) pp. 100-105.

며느리는 그 뜻이 두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도사증을 만나 동냥을 주고 시아버지가 말풀마다 사용하는 '허망하다'의 의미를 물었다. 도사증이 그 말을 듣고 "날 따라 오시오"하여, 증을 따라 가서 증하고 어언 삼년을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았다. 그러나 3형제가 한명씩 모두 죽어 버렸다. 증과 함께 메메다가 땅을 파고 한 구덩이에다가 넣으며 아이고 대고 울다가 눈을 펴며보니 그대로 그날 아침이었다. 꿈이었다. 허망한 꿈이었다. 꿈얘기를 하고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꿈에 아들을 묻은 곳을 가서 파 보니 돈 세 항아리가 나왔다 한다.<sup>10)</sup>

이 민담 역시 위에서 상술한 조선의 꿈과 같은 構造를 지녔음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 III. 「잃어버린 사람들」의 構造와 意味

黃順元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치밀한 언어구사와 빈틈없는 구성력을 구사하고 있으며 文體의 說話性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 末尾에 附記되어 있는 글은 이 作品의 源泉을 일단 설명하고 있다.

통영 해평 나루 뒷은 편 미륵섬 올라가는 원편 길가에, 이끼긴 조그마한 단갈이 하나 서 있다 〈古海坪烈女紀實碑〉. 그리고 지금도 통영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옛 해평 나루터에 어디서 떠들어 왔는지 모를 부부가 살았는데, 성자와 나이도 분명치 않고 이웃과 별로 사귀는 일도 없이 그저 양주의 의만이 차별나게 좋던 중, 하루는 생계를 위하여 남편 되는 사람이 어선을 따라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깨어졌다. 이를 안 아내되는 사람이 남편이 빠진 곳을 찾아 나아가 물에 몸을 던졌더니, 이튿날 이곳을 지나는 배가 있어, 물 위에 떠 있는 시체 둘을 발견했다. 남편의 시체를 안고 있는 여인의 시체였다—1955. 십일월

위의 글에서 우선 이 작품이 說話의 小說化임을 작가 스스로 밝히고

10) 최내옥교수는 이 민담을 해석하면서 시아버지의 반계 달음(半覺)의 사람, 며느리는 깨닫지 못한(無明) 사람, 증은 부처, 금 항아리 셋은 佛敎의 三寶(佛, 法, 僧)로 풀이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 단간이 실제로 있는가 하는 것과, 통영에서 채집된 듯한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 作品이 說話의 變容이라는 것은 더욱 확고히 구축될 것이며, 사실이 아니고 작품의 실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 虛構라도 說話의 小說化라는 構造를 취하고 있음은 自明한 일이라 하겠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作品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入夢—覺夢의 구조를 擇하고 있지는 않지만 「調信夢」의 調信과 金氏娘子의 사랑의 遷歷을 그대로 도입하여 作品化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作品의 理解를 돋기 위하여 核心的인 段落으로 區分하여 보겠다.

- ① 석이와 순이는 좋아하는 사이다.
- ② 순이가 서제골 박참봉의 소실로 들어 간다.
- ③ 근친 온 순이와 석이는 사랑의 도피를 한다.
- ④ 석이와 순이가 숨어 사는 곳이 박참봉의 오촌 조카에게 발각되어 석이는 박참봉의 아들에게 귀를 잘리우고 추방당한다.
- ⑤ 다시 도망가 사는 양짓골에서 어머님 병환이 위독함을 알고 고향집으로 갔으나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분노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선다.
- ⑥ 다음으로 석이네가 옮겨 앉은 지리산 속에서 아들 머투눈이를 늑대가 물어 간다.
- ⑦ 통영으로 나온 석이는 어부 생활을 하다가 파선하여 바다에 빠져 죽는다.
- ⑧ 시체를 찾으러 나가는 배를 탄 순이 또한 남편 석이를 따라 바다에 몸을 던진다.

作家 全知的 視點을 擇한 이 作品의 構成 plot의 展開를 살펴 보면 ①에서 ③까지 근친 온 순이와 석이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임으로써 이 사건의 發端은 시작되는 것이다. 도피하여 갖은 고난을 오로지 두 사람의 강렬한 愛情의 힘으로 克服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④에서 ⑥까지를 展開로 보면, ⑦에서 석이의 ‘죽음’을 絶頂으로, ⑧에서 순이의 ‘죽음’을 結末(破局)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강력한 世界와의 對決(박참봉의 소실이라는 사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極限狀況을 設定하고 그 世界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들의 사랑을 完成시키고자 한 석이와 순이의 사랑의 이야기는 갈등을 가진 사랑이며 극한상황 속에서의 처절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對決은 既成秩序(혹은 傳統, 風習이라 해도 좋다) 앞에 여지없이 無力한 存在가 되어 陷沒하고 마는 悲劇的 終末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주리엣」의 ‘죽음’도 같은 ‘世界와의 對決’에서의 敗北임은 말할 것도 없이 自明한 일인 것이다.

석이가 박참봉의 아들에게 귀를 잘리우고 추방당함으로써 一次的인 自我의 봉괴는 시작되는 것이며, 석이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와의 義絕, 순이네집이 당한 土地回收 등에서 二次의인 봉괴가 形成되고 지리산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늑대에게 빼앗김으로써 三次의인 봉괴에 直面하며, 이 모든 봉괴는 석이와 순이를 통영 바다로 내몰기 위하여 意圖的으로 設定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결국 바다에서의 마지막 봉괴와 함께 設定함으로써 悲劇의 終末의 大段落을 맺은 것이다. 여기서 ‘바다’를 세팅으로 하여 석이와 순이의 ‘죽음’을 形成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가 곧 석이와 순이가 對決하고 있는 바로 그 世界이며, 그 세계 속으로 陷沒하고야만 어느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觀點에 따라 敗北로 볼 수도 있겠으나 昇華로도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主人公 석이와 순이와의 죽음은, 「調信夢」의 離別과 깨달음(大悟覺醒)이 宗教的인 次元에서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宗教의 모색이 전혀 없이 文學的인 次元에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이 作品의 構造的 側面을 一瞥하였다. 이 項에서 言及되지 않은 「調信夢」과의 對比的 考察을 함으로써 變容過程을 밝히는 作業은 V項에서 言及될 것임을 밝혀 둔다.

## IV. 「꿈」의 構造와 意味

- ① 김태수 혼공의 딸 月禮(달례)가 거북재에서 우연히 調信을 만나 절벽에 편 철쭉꽃을 꺾어 달렌다.
- ② 그 후로 調信은 달례를 잊지 못하고 용선화상에게 달례와의 인연을 맷어 주기를 간청한다.
- ③ 용선화상이 조신을 불쌍히 여겨 法堂에서一心으로 관세음보살을 念하도록 한다.
- ④ 念佛에 지쳐 睡魔에 쫓기는데 法堂문이 살며시 열리며 달례가 들어온다.
- ⑤ 모례와 약혼한 사이인 달례가 조신에게 사랑을 호소하며 같이 도망가 살 기를 간청한다.
- ⑥ 꼼굴에서 하루 밤을 지낸다.
- ⑦ 동료 중인 평목이 뒤쫓아와 김사또의 분노를 전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 한다.
- ⑧ 평목의 요구를 거부하자, 평목은 조신에게 용선화상이 보낸 가사와 장삼 을 전하고 되돌아 간다.
- ⑨ 조신과 달례는 태백산 깊숙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 ⑩ 아들 미력과 칼보고, 딸 달보고와 거울보고를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 ⑪ 십오년이 지난 어느날 평목이가 다시 나타나서 모례의 追跡을 알리며 조신의 딸을 줄 것을 은근히 요구한다.
- ⑫ 조신은 평목의 파렴치한 짓에 분노하여 평목을 죽여 산의 굴속에 숨진다.
- ⑬ 죄책감에 시달리는 조신, 아내도 조신이 저지른 일을 눈치챈다.
- ⑭ 어느날 딸 달보고가 샘터에서 수상한 사람(모례)를 만난다.
- ⑮ 원님일행과 서울 손님이 사냥차 나와 사처할 房을 마련하라는 命을 받고, 조신이 房을 치우다 평목이 남긴 바랑을 발견하고 괴로워 한다.
- ⑯ 서울 손님 사냥터에서 두 마리의 사슴을 쫓아, 평목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굴로 들어가 평목의 시체를 알아 본다. 서울 손님이란 모례이다.
- ⑰ 유일한 단서가 될 평목의 바랑이 발견될 순간에 조신은 온 식구를 데리고 또다시 도망을 한다.
- ⑲ 도망 중에 아들 미력이 심한 열로 죽는다.
- ⑳ 주막에서 머무는 중에 모례의 추적을 받아 모례와 대면하게 된다.

- ㉙ 모례의 준엄한 호령에 조신은 몸돌 바를 모르고 멀쩡매다 자현을 결심 한다.
- ㉚ 달례 역시 남편 조신을 따라 죽길 원하나 모례가 삭발을 시킨다.
- ㉛ 조신, 결국 사형 당한다.
- ㉜ 용선화상이 조신의 꿈을 깨게 한다.
- ㉝ 조신은 이때부터 일심으로 수도하여 낙산사성이라는 네 명승 중에 한 분인 조신 대사가 되었다.

이상에서 春園의 「꿈」을 本論議에 적절하도록 단락을 지어 그內容을 밝혔다.

우선 構成(plot)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發端 : ①~⑤
- (2) 展開 : ⑥~⑩
- (3) 絶頂 : ⑪~⑫
- (4) 結末 : ⑬~㉝

調信과 달례가 제각기 자기의 세계를 버리고(調信은 승려의 신분을, 달례는 약혼관계를 포기한 것은 자기세계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두 사람의 세계를 構築하기 위해서自己各者の世界를 脫出한다. 이 脱出의 意味는 두 사람만의 共同의 world를 向한 도피이며, 이러한 새로운 world에로의 도피가 이 作品을 存在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構成上에 發端으로 보았다.

이 發端部分은 進行過程에 있어서 時間의 흐름에 따른 順序的構成方式을 취하지 않고 調信이 평목과 함께 달례를 戀戀해 하는 場面이 먼저 나오고 回想的手法에 의해서 달례와의 첫 만남이 묘사되고 있다. 이는 이미 이 作品이 小說的인 변용을 하여 作家의 技巧가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신과 달례와의 '첫 만남'을 設定하는 데 있어서 新羅 鄉歌 獻花歌의 背景說話가 借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석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의결한 場面에서 元述郎의 說話가

導入된 것과 함께 매우 재미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展開部分은 調信과 달례가 남의 눈에 발견되지 않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살다가 달례의 악혼자 모례와 만나기 직전까지로 보았는데,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 「調信夢」說話를 小說化하는데 가장 다양하게 변용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春園은 過程을 擴大하는데 心血을 기울인듯 한데, 이것은 入夢—覺夢의 定石의 꿈 作品 系列의 公式을 그대로 構造上의 兩大 支柱로 設定한 結果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 자연히 入夢과 覺夢의 사이過程을 擴大하여 多樣化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調信과 달례가 첫날 밤을 보낸 곰굴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는데 檀君神話에 나타난 꿈과의 관련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그럴만한 근거는 있다고 본다.

한편 용선화상이 보내준 가사와 장삼은 조신과 결코 단절될 수 없는 세계一佛陀의 世界와의 關係를 뜻한다고 본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월례와 조신을 추적하는 서울 손님 모례 장군이 산 속에서 두 마리의 사슴을 추적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월례와 조신을 추적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作品의 絶頂은 모례 장군의 出現이다. 모례 장군은 조신과 월례가 배반했던 世界에서 보낸 使者이다. 즉 秩序로의 律法이며 이들에게는 拘束力인 것이다. 결국 조신과 달례는 기피하던 世界 속에 다시 包容되지만, 自己破滅의 意味를 지닌 歸還인 것이다. 조신은 효수되고 달례는 삭발되어 불가애의 歸依를 재촉한다. 여기서 覺夢하여 結末部分이 이루 어지는데 調信이 大悟覺醒하여 洛山四聖 스님의 한분이 되었다는 追記는 이 작품의 主題性을 강조하며 根源說話에 그만큼 성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겠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人物들의 관계를 보면 김태수와 모례장군은 현실세계에서 피할 길 없는 律法이며 秩序를 代表하고 평목은 이것을 빙자하여 私慾을 채우는 惡을 대표한다 하겠으며 入夢하

현실세계		꿈의 세계
김 태 수		달 레 ————— 조 신
모 래 장 군	용 선 화 상 (매 개 체)	미 달 보 려 칼 거 보 고 울 보 고
평 목		

여 夢中에 만난 달례와 사이에 태어난 네 아이는 바로 人生이며 覺夢하는 순간과 함께 無常을 터득하여 人生無常의 主題를 말하는데 동원되는 人物들이다. 용선화상이야말로 現實界와 夢界兩界를 주관하고 지켜보는 부처의 化身이라고 할 수 있겠다.

## V. 對比的 考察

### (1) 「調信夢」과 「잃어버린 사람들」

#### ① 入夢—覺夢의 場面

「調信夢」에 나타난 入夢部分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其女已有配矣，又往堂前怨大悲之不遂己，哀泣至日暮。情思倦懶，俄成假寐。  
忽夢金氏娘容豫入門。<sup>11)</sup>

「調信夢」은前述한 바와 같이 入夢—覺夢의 公式을 취한 說話로 調信이 佛供에 지친 나머지 훌연히 잠이 들어 꿈 속에서 김씨남자를 만나게 된다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이미 人生無常의 主題性을 示唆하고 있으나 「잃어버린 사람들」에서는 入夢—覺夢의 支柱를 除去함으로써 석이와 순이와의 이를 수 없는 悲劇의인 사랑의 이야기에 焦點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커다란 秩序의 世界와 對決을 시킴으로써 서서히 봉괴되어 버린 사랑의 이야기—여기서 悲劇의인 終末이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作品에서도 看過할 수 없는 場面은 석이가 시달리는 꿈

11) 이병도 역주, 「삼국유사」調信條

場面이다.

석이는 얼마 전부터 곧잘 어수선한 꿈에 시달림을 받곤 했다. 순이가 가마를 타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 가마가 시집갈 때 타고 간 가마가 아니고 흰가마인 것이다. 박참봉 영감이 돌아갔음에 를림없었다. 그러나 돌아 왔던 순이는 잠깐 자기 집 앞에 가마만 멈추었다가 곧 되돌아서 가는 것이다. 삼년상을 치르자는 것이거나 혹은 청상과부로 늙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석이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박참봉네 드높은 둘담장에 무명필을 걸고 넘어가 순이를 엎어내는 것이다. 때로는 순이가 석이하는 대로 다소곳이 쫓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쳐 항거하기도 했다. 이렇게 순이를 엎고 박참봉네 드높은 담장을 뛰어내리면서 몸이 깨지곤 했다.<sup>12)</sup>

꿈 속에서 순이를 태우고 오는 가마가 현실에서도 역시 가마를 타고 옴으로서 꿈 속의 가마는 현실에서 순이가 가마를 타고 올 暗示라고 볼 수 있다.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눈을 준 저기 산모동이를 돌아서는 것이 를림 없는 가마인 것이다.<sup>13)</sup>

꿈과 現實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석이와 순이는 도망의 길을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이의 꿈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秩序의 世界를 代喻하는 박참봉의 죽음 없이는 이들의 사랑은 合法化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世界와의 對決을 決心하고 그들만의 世界를 向한 과감한 脱出을 계획하는 것이다. 여기서 흰 가마는 이 作品의 悲劇的 終末을 이미 暗示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 말이 아닐 것이며, 이러한 꿈 장면에 이어서 순이와 석이의 再會를 계획한 것은 이 작품에 나타난 꿈 構造라고 단정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꿈 構造를 小說化 過程에서 이와같이 變容시킴으로써 「調信夢」에서 취하는 主題性을 脱皮하고 사랑의 이야기로

12) 황순원, 황순원전집(創又社 1965), pp. 29-30.

13) 상계서 p. 30.

展開될 수 있으며 꿈 자체를 作品上에서 작가의 편의대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調信夢」에서의 入夢은 조신과 김씨남자의 만남이 모티브가 되어 覺夢과 同時に 別離를豫定하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의 석이의 꿈은 순이를 염어 내 오는—순이와의 만남에서 覺夢한다. 即 調信의 꿈은 瞰과 동시에 無常을 깨닫고 佛教에 歸依를 가져 오지만, 석이의 꿈은 깨는 것과 동시에 순이와의 만남을 약속하여 두 사람의 도피행각이 진행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바꾸어 말해서 入夢—覺夢의 公式은 主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設定된 公式임은 알 수 있다.

## ② 背 景

「調信夢」에서의 背景은 漢州捺李郡에 있는 世達寺의 壮舍이고, 조신과 김씨남자의 도피처는 鄉里라 하여 구체적 기록이 없으나 한 곳에서의 도피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小說에서는 서젯풀에서부터 도망나온 석이와 순이의 行路는 제 1 정착지—하동이 바라다 봄는 곳, 제 2 정착지—양짓풀(사천에서 서남쪽으로 한 침리 떨어진), 제 3 정착지—지리산, 제 4 정착지—통영으로 이어 지고 있다. 이 全過程에서 석이와 순이의 千辛萬苦의 歷程을 擴大하여 그들의 悲劇性을 深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悲劇的 終末을 說明해 줄 蓋然性의 擴充이라고 생각한다.

## ③ 身分, 性格

조신은 僧侶, 석이는 地主의 아들, 김씨남자는 태수의 딸, 순이는 소작인의 딸이다.

도망을 계의하는 편이 說話에서는 김씨남자, 小說에서는 석이, 헤어지기를 계의하는 편도 說話에서는 金氏娘子, 小說에서는 석이가 귀가 짤리던 날 순이의 자살기도와 對比할 수 있으나 結末에서 석이를 따라 죽는 순이—결국 調信의 사랑은 離別로 끝남으로써 無常을 強調하고 있으나 석이의 사랑은 죽음으로 昇華된 完全한 結成임을 알 수 있다.

#### ④ 子 息

說話에서는 다섯을 낳아 한 명이 깔주려 죽고 한 명은 개에게 물려 이별할 때 각각 두 명씩 데리고 헤어진다. 小說에서는 한명을 낳았는데 지리산 늑대에게 물려 간다. ‘개’에서 ‘늑대’에의 變容이라 할 수 있겠다.

##### (2) 「調信夢」과 「꿈」

###### ① 入夢—覺夢의 場面

「調信夢」의 調信은 관음보살의 인도를 받아 꿈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꿈」에서의 조신은 용선화상의 인도로 入夢한다. 說話性을 脫皮하기 위한 불가피한 人物設定이다. 꿈을 껬 때도 마찬가지로 설화에서는 조신 혼자 깨어 大悟覺醒하지만 소설에서는 용선화상이 깨워줘 각성 토툭 한다. 이 入夢—覺夢의 構造는 黃順元의 前記 作品과는 달리 春園의 「꿈」에서는 성실히 說話의 構造를 그대로 借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說話와 「꿈」의 主題의 同一性을 말하여 주고 있다.

###### ② 背 景

說話와 마찬가지로 小說에서도 背景은 단순하여 조신과 달례가 도피한 곳은 태백산 한 곳이다. 황순원의 여러 곳과 비교되며 지리산과 태백산의 차이를 볼 수 있다.

###### ③ 子 息

說話와 小說 共히 4명으로 小說에서는 자식들의 이름을 불이어 미력, 달보고, 칠보고, 거울보고로 하여 作品化하였다.

說話에서는 꿈 속에서 깔어 죽은 아들을 묻은 곳을 꿈에서 깨어난 후 파보니 들키듯이었다고 하였는데, 소설에서는 조신이 태몽에 미륵불을 보았다하여 미력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다. 도망 중 미력이 심한 열로 죽는다. 說話에 충실하면서도 小說 作品으로써 손색이 없이 창작고자한 작가의 意圖임을 알 수 있다.

#### ④ 其 他

「꿈」은 說話의 構造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독자에게 흥미를 주기 위한

작가의 창의성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여기서 몇가지 간추려 보면

- ㄱ. 조신과 달례(김씨남자)의 첫 만남에 현화가 배경설화를 도입한 점.
- ㄴ. 용선화상의 설정.
- ㄷ. 평목을 설정하여 惡人으로 출현시킨 점.
- ㄹ. 모례장군 설정과 그의 끈질긴 추적을 진박감있게 한 점.
- ㅁ. 千辛萬苦 끝에 김씨남자는 이별을 제외하나 달례는 곤경에 처한 조신을 따라 죽고자 한 점.

### (3) 「잃어버린 사람들」과 「꿈」

이 項은 本稿의 애당초 目的과 직접적 관련이 없겠기에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상이점을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 ㄱ. 「잃어버린 사람들」에는 元述郎의 說話가, 「꿈」에는 獻花歌 說話가 동원되었다.
- ㄴ. 「잃어버린 사람들」에는 자식 한 명, 늑대에게 죽고 「꿈」에는 자식 네 명, 한 명이 병들어 죽는다.
- ㄷ. 박참봉으로부터 가마타고 오는 순이의 귀향 장면과 달례가 조신이 있는 세달사로 가마타고 오는 장면은 매우 비슷하게 설정되었으며 그것을 보는 석이와 조신의 심정 또한 비슷하게 설정되었다.
- ㄹ. 석이와 순이는 죽음의 세계로, 조신과 달례는 불교로 귀의함으로써 相異한 主題를 보인다.
- ㅁ. 倫理的인 律法이며 世界인 모례장군의 끈질긴 추적이 조신과 달례를 괴롭히는데 반해서 석이와 순이는 박참봉의 아들의 일차적인 추적을 받았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世界와의 끝없는 對決이며 봉괴였다.

## 結　　書

지금까지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의 源泉을 찾기 위하여 「調信夢」의 小說化 過程을 살펴 보았다. 春園의 「꿈」과의 對比의 方法을 동원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은 「調信夢」說話를 受容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았다. 說話의 構造를 破壞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春園의 「꿈」은 根源說話의 構造를 百分 살리면서도 作家의 創意性을 살려 全體的인 過程을 擴大 深化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黃順原의 「잃어버린 사람들」은 世界와의 對決에서 봉과한 두 젊은이의 悲劇의 인 사랑을 深化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美學으로 結末을 照明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夢遊錄系列의 說話가 取하는 入夢—覺夢의 構造가 「人生無常」이라는 主題性을 強調하기 위한 것이라면, 春園의 「꿈」은 그 主題性을 充分히 살리고 있다고 보겠으나 黃順原의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主題性에서 벗어나 「사랑」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調信夢」의 變容을 볼 수 있다.